

## 10/13(화) 사사기 묵상 2

### 사사기 1:16-26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다 자손과 나머지 지파들은 각자 분배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결국 원주민들을 모두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 모세의 장인 겐 족속

여호수아서와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을 불편케 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진멸하라고 명하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본문 16절에 등장하는 모세의 장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겐 사람’이었고 그들도 가나안 땅을 차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민수기에 보면, 모세가 그의 처남인 호باط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제안하게 됩니다. (민 10:29,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باط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 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다음 구절(민 10:30)을 보면, 호باط은 모세의 제안을 거절하지만 결국은 호باط과 그 민족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 2장에서 이방인 기생 라합과 그의 친척들을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라합은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가계인 유다지파의 족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마 1장). 오늘 본문 24-25절을 보면, 요셉 가문이 벤엘을 치러 올라갈 때에도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한 가족을 살려주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멸하라고 명령하신 대상은 모든 이방인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 족속들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해하기를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스라엘 중심이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무조건 멸하시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선지서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 42:1, **“내가 불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는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욘 4:11,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 다 쫓아내지 못함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시지만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을 진멸하라 명하신 것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분배 받은 지역의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당시는 청동기 시대로 가나안 족속이 철을 무기화한 것은 당시로는 매우 강력한 신식 군대였음이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합당한 이유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을 이미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삿 1:2,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둘째로, 이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부터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했다기 때문입니다(수 17:16-18,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 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결국 유다 백성들이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을 제압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생각과 판단을 더 의지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믿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그런 영적인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막상 월요일부터 다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철병거와 같은 거대한 세상 앞에서 마치 자신이 메뚜기와 같이 느껴지고 소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담대해 지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중보자로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 곁에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 앞에 오늘도 두려움을 내려놓고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담대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마 6:9-10,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 기도제목

1. 우리 눈 앞에 보이는 거대한 철병거와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크신 위대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2. 미국 대선일(11월 3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준비된 지도자를 이 나라에 세워주소서.
3.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영적인 강건함과 더불어육적인 필요로 채워주시옵소서